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출범

초대원장 趙完圭박사, 창립회원 576명
科總 부설기관으로 5개 연구부 설치



지난해 11월22일 외교안보연구원 강당에서 거행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창립총회에서 成樂正 과총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원내는 초대원장으로 선출된 趙完圭박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석학과 원로 과학기술자 576명으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Kore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지난해 11월22일 외교안보연구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원장에 趙完圭 서울대명예교수가 선출됐다. 또 부원장에는 金基衡한국과학기술원이사장, 李相洙한국과학기술원명예교수, 李鎬王아산생명과학연구소장, 趙鏞涉서울대농생대교수 등 4명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창립총회는 李相洙설립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金基衡설립추진위원이 낭독한 창립선언문을 채택하고 의안심의에 들어가 운영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입회비 및 95년도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成樂正과총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과학기술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바

탕으로한 순수 민간모임으로 한림원이 대동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한림원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적 식견과 해안을 가진 원로와 석학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명예는 물론 당면한 국제화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권위있는 학술기구로서 세계속의 한림원으로 성장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金始中과기처장관은 축사를 통해 “여기 모인 우리가 50년 한국 현대 과학기술사에 역사적인 새 장을 열고 있다”고 선언하고 “한림원 회원 모두는 백만과학기술인들의 표상이 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의 선구자이자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관은 이어 “한림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인들의 권익신장과 과학기술의 중요성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한편 미래와 세계를 내다보면서 과학기술계 전체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구조개혁 및 과학문화창달에도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기구로 출범한 한림원은 과학기술계가 그동안 축적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 그리고 응집된 창조적 역량을 바탕으로 조국의 선진화에 새롭게 이바지하기 위한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목표를 두고있다. 이를 위해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 정책 등 5개 연구부를 두고 초기에는 5년 임기의 정회원만으로 운영하되 앞으로는 30대 준회원과 외국인 석학까지도 회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림원은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를 통한 정책 건의 및 대안제시 ▲과학기술인의 창조적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 ▲과학기술이 우대되는 사회분위기조성선도 ▲과학기술계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의 주역 ▲새로운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는 선구자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초대원장으로 선출된 趙完圭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림원 발족이 선진외국에 비해 너무 늦었지만 서둘러 조직을 정비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한림원도 법정기구가 돼야 힘이 생기므로 내년 3월 정기총회까지 조직을 정비한 뒤 정부로부터 법정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외국의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